

開化期 漢文學의 變移樣相

朱 昇 澤*

I

한국문학에서 開化期라는 시기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洋夷정도로 막연히 알고 있던 서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와 위기의식을 震源으로 하는 충격이 문학분야에서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¹⁾

이같은 충격은 아편전쟁의 패배, 영불연합군의 북경합락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일본의 征韓論까지 이에 가세하자 중인층과 일부 사대부층에서는 더 이상 事大交鄰에 근거한 동양적 질서속에 안주할 수 없다는 각성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朴珪壽와 姜瑋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 문인의 인맥이 형성되었고 개화기의 한문학은 이들을 起點으로 하여 한문학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져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²⁾

* 박사과정

- 1) 개화기란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화기를 한국 문학에서 漢文學과 國文學이 교체되는 전환기로 파악하고 그 상한선은 국한문혼용체가 등장하는 1890년대 중반기로, 그 하한선은 한문학과 국문학의 교체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는 1920년대 전반기까지로 잡고자 한다.
- 2) 朴珪壽의 門下에서는 金允植, 兪吉濬, 徐載弼 등이 나와서 큰 영향을 끼쳤고, 姜瑋의 영향을 받은 李建昌, 金澤榮, 黃玆 등이 이 시대 문단의 중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開化期 漢文學의 연구방향을 점검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된다.

- 가) 개화기 한문학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정리
- 나) 한문학과 근대문학의 상호 연관성 검토
- 다) 한문학의 쇠퇴과정과 그 하한선 劃定

이 가운데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미 개략적으로나마 고찰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³⁾ 본고에서는 다)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화기 문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한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제한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만큼 본고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정도의 의의 외에 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다.

II

한문학을 이미 과거의 문학으로 인식하고 金台俊이 《朝鮮漢文學史》를 쓴 것이 1931년의 일이다.

“날은 것을 整理하고 새로 새 것을 배워서 新文化的 建設에 힘쓰자! 이것이 朝鮮漢文學史의 웨치는 標語라 하노라.”⁴⁾

심권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크지만 박규수의 門下生들이 급진적이었음에 비하여, 강위 일파는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李恒老의 門下生들처럼 개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던 만큼 모두 개화파로 보아 무리가 없다.

- 3) 가)항에 대해서는 拙稿 〈開化期の 漢詩研究〉(서울대 석사논문, 1984)
- 나)항에 대해서는 拙稿 〈한국近代詩 형성의 장론적 측면—漢詩와 근대시의 관계를 중심으로—〉(《現代詩》제 2집, 文學世界社, 1985) 참조
- 4)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p. 191.

위의 인용문은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 그가 漢文學史를 집필한 동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집필, 정리하는 동양적 관례에 따라 김태준은 漢文學史를 정리한 것이며 이미 한문학은 쇠퇴 내지 종료된 문학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은 김태준의 견해는 그 뒤를 이어 한문학사를 집필한 李家源, 文璇奎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⁵⁾ 한문학의 無限線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비판이나 검토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한일합방 이전으로 하한선을 劃定하였고, 姜瑋·李建昌·金澤榮·黃玆 등 한말의 문인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한문학사를 끝맺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한문학사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김태준이 한문학사를 저술한 무렵에는 한문학이 결코 낡은 문학도 과거의 문학도 아니었다. 각종 신문·잡지의 문예란을 무대로 한 중앙문단에서는 밀려나 있었지만 지방문단은 여전히 한문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중앙문단의 경우에도 辛亥陰社·大東詩壇과 같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詩社가 엄존하고 있었다. 만약 한국문학사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金澤榮·尹喜求·柳瑾·呂圭亨·安往居·張志淵·鄭寅善·卞榮晚 등의 한문학과 李光洙·崔南善·金億·金東仁·玄鎮健·廉想涉·金素月·韓龍雲 등의 근대문학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개화기 문학이 근대문학으로 바뀌는 맥락이 제대로 파악될 것이다. 1920년대 전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은 분명히 같은 시기에 생존하며 문학활동을 했으며 문학적 성과나 당대 독자층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해도 한문학이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문학의 하한선을 획정함에 있어 上記한 한문학사 집필자들

5) 李家源 《韓國漢文學史》(民衆書館 1961); 文璇奎 《漢文學史》(正音社 1961).

의 견해나 일반적 통념은 일단 수정 내지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한문학과 국문학이 명확한 경계선을 이루며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문학이 일, 이십 년 사이에 붕괴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 이천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너무 급격하다는 느낌을 불식할 수 없지만, 한문학의 쇠퇴과정과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은 상당기간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양자의 교체시기는 그 주도적 위치가 뒤바뀌는 기간에 쫓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문학과 국문학을 나란히 놓고 작품의 생산자인 작가 집단의 상호대비, 이의 소비자인 독자들의 독서경향이나 新舊文學을 보는 관점, 작품의 전달통로인 신문·잡지·동인지·개인문집 등의 편집, 출판 및 유통판매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⁶⁾ 그러나 필자의 능력부족과 자료미비로 광범하고 정밀한 현상분석이 어려운 형편인 만큼, 이 가운데 비교적 손쉬운 전달매체의 검토가 본고의 주된 방향 될 것이다. 한편, 개인문집은 石版·活版 인쇄의 도입으로 노력과 비용이 덜 들게 되어, 전대에 비하여 무척 활발히 간행되나, 자료의 수집과 해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필자로서는 玉石을 구분할 능력도 부족한 만큼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시의 신문·잡지의 문예란과 중앙문단의 同人活動(한문학의 경우는 詩社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대할 수 있는 성과도 당시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는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우선,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범박하게 검토해 보면 한문학의 쇠퇴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앙문단에서의 쇠퇴가 지방문단의 쇠퇴보다 선행하고, 文의 쇠퇴가 詩의 쇠퇴보다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 수

6)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Robert Escarpit의 文學社會學 方法論을 援用할 수 있겠지만 그 토대가 되는 신빙성 있는 각종 자료의 수집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Robert Escarpit,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민회식, 민병덕 譯(乙酉文化社, 1983) 참조

있다. 특히 중앙문단에서 한문학의 쇠퇴는 시간이 경과하면 지방문단으로까지 파급될 것이 필연적이므로 본고에서는 중앙문단에서 文과 詩가 차례차례 쇠퇴해 가는 과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문학의 하한선 획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침표를 찍을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나름대로의 자료를 통하여 제기할 것이다.

II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조선시대 문단은 한문학과 국문학이 공존해 왔으며, 時調처럼 서로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소설처럼 국문학쪽이 훨씬 우세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문학이 주류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문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라는 自生的 측면과 서구의 충격이라는 外來的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같은 한문학의 우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개화기 한국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기서 외래적 요인은 朴珪壽의 사랑방 모임을 중심으로한 개화파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지만 자생적 요인은 이미 英正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시조, 국문소설, 장편가사 등이 중인층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어 양반들까지도 국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글 잘하는 선비가 맡는 직책인 書狀官으로 해외에 다녀와서 국문가사로 기행문을 남긴 金仁謙의 「日東壯遊歌」, 洪淳學의 「燕行歌」 같은 경우가 그 단적인 실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또는 국문학)이 한문(또는 한문학)의 지배적 우위를 흔들지는 못했던 것인데, 1895년 兪吉濶의 「西遊見聞」, 1896년 徐載弼의 「독립신문」, 1898년 張志淵의 「皇城新聞」 등이 國文 또는 國漢文으로 간행됨으로써 한문의 일방적 우위가 종료되고, 漢文·國文·國漢文이 병존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國

文學이나 國語學界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⁷⁾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선학들이 소홀히 한 측면을 검토하여 그것이 한문학의 쇠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先學들은 國漢文體(國漢文混用體라고도 하는)⁸⁾보다는 國文體의 등장을 혁신적이나 획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문체란 혼민정음 창제 이후 經書의 諺解과정에서 생긴 譯語體로부터 시작하여 부녀자들의 內簡體를 거쳐 조선 후기의 소설 문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변모, 세련되어 왔다. 특히, 소설문체는 李人植, 李海潮의 新小說을 거쳐서 李光洙의 《無情》, 金東仁의 〈약한자의 슬픔〉 〈배따라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변모과정을 거쳐 현대의 소설문체로 정착된다. 말하자면 국문체의 발달은 소설문체가 주도한 셈인데, 오늘날 우리가 언문일치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상은 金東仁등에 의하여 정착된 현대식 소설문체를 지칭하는 것

-
- 7)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一志社, 1978), pp. 127~129.
 金允植, 《韓國文學史論考》(法文社, 1973), pp. 102~109.
 —, 《韓國近代文學 樣式論考》(亞細亞文化社 1980), pp. 188~192.
 林燦澤, 〈東國詩界革命과 그 意義〉《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 논총》(신구문화사, 1982).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一朝閣 1970), pp. 13~34.
 이병근, 〈애국제몽주의 시대의 국어관〉《韓國學報》12호 (一志社, 1978).
- 8) 國漢文 또는 國漢文混用體라는 用語 자체는 상당한 오해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漢文에 口訣式으로 붙이면 따를 國文으로 바꾸어만 놓은 듯한 文章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文章 전부가 이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편의상의 분류이고 어떤 명확한 경계선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國漢文體는 漢主國從體와 國主漢從體로 구분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文體(물론 本稿의 文體도 이 속에 포함된다)를 國主漢從體라 한다면 本稿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漢主國從體를 가리킨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 명칭으로는 漢諺文이라고 불리우던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國文이라고도 불리웠기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本稿는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漢文體는 純漢文만을, 國漢文體는 漢主國從體(漢諺文體)를, 國文體는 순국문이나 國主漢從體 文章을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규정해 놓고 앞으로 論旨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다.

그런데, 「독립신문」 「조선 그리스도인회보」 「그리스도 신문」 「협성회 회보」 「제국신문」 등에서 채택한 국문체라는 것이 사실은, “~했더라” 식의 소설문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국문체가 「독립신문」에서 채택됨으로써 공용문의 성격을 얻게 되었다는 점만은 획기적인 일이지만, 국문체가 이 시기에 와서 크게 혁신되었거나 한문체를 대신 할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국문체는 기독교 계통 지식인들이나 부녀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 사대부층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皇城新聞」은 국문체로 기획되었다가 국한문체로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하여, 국한문체는 어디까지나 개화기의 산물이며 개화기라는 시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과도기적 문체이다. 문체는 이 과도기적 문체에 의하여 한문학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문학은 전통적으로 詩와 文으로 大別되어 왔는데, 국한문체의 등장은 그 가운데 文의 역할과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혹자는 한문체와 국한문체는 단어의 배열 순서만 약간 다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표기방식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이 약간의 차이가 실상은 한문학의 존재를 좌우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단순히 文意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문의 경우에는 이 약간의 차이가 경시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문학 작품인 경우 이 차이는 작품의 성패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곧, 말의 어순을 바꾸어 풀어 쓰는 국한문체의 이완된 문장구조는 함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문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문의 세련된 표현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⁹⁾ 물론, 국한문체도 그 나름대로 세련

9) 口語에 가까운 이완된 문장구조를 한문학에서 얼마나 꺼리끼는가 하는 실례를 우리는 金澤榮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김영택은 망명지 중국에서

시켜서 문학적 문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 문체가 지니는 과도기적 성격이 그런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신문·잡지에서 한문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大朝鮮獨立協會 會報》《大東學會月報》《朝鮮文藝》 등 한문 중심의 잡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한문체가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문체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같은 신문·잡지의 〈詞藻欄〉이나 〈文苑欄〉에서 漢詩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載道之具로써 또는 經世之具로써 詩보다 오히려 중요시되던 文이 이처럼 급작스레 밀려난 것은 당시의 작자층이나 독자층이 모두 한문의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개화기 이전에는 작품의 전달통로가 극히 제한된 관계로 문단도 中央文壇, 嶺南文壇, 湖南文壇 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였고 작품의 전국적 유통경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신문·잡지같은 새로운 매체들은 문단의 지역적 특성이나 배타성을 깨뜨리고 작품의 전달통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중앙문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張志淵, 朴殷植, 申秉浩 등의 명성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皇城新聞」이나 「大韓每日申報」를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들이 국한문체로 발표한 애국계몽논설이나 역사전기물들을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래 한문학에서 文이란 실용문과 예술문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 경

《麗韓九家文》을 選할 때 白話에 가까운 註疏語錄體 문장을 썼다는 이유로 牧隱 李穡을 비판하면서 牧隱은 물론 그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기 문장가들 모두 제외시켰다.

…李牧隱以益齋門生 始唱程朱之學 而其文多雜註疏語錄之氣 自是至吾韓二百餘年之間 有權陽村 金佑畢·崔簡易·申象村·李月沙諸家 而皆受病於牧隱〈雜言四〉《金澤榮全集》(亞細亞文化社, 1978), 卷貳 pp.123~124

이처럼 註疏語錄體를 반대하는 金澤榮이 국한문 혼용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계선이 무척 모호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자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道學派, 후자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詞章派라고 부른다. 그런데, 국한문체가 가장 큰 타격을 가한 것은 議論文이나 記事文을 중심으로 하는 道學文章 쪽보다는 辭賦를 중심으로 하는 詞章쪽이었다.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문단이 국한문체를 채택함으로써 詞章은 설자리를 잃고 漢文學은 漢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詞章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 개인적 창작활동이나 신문·잡지의 한귀퉁이에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였고 엄격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존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한문체의 등장으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丙子修好條約·甲申政變·甲午改革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소용돌이는 「西遊見聞」「皇城新聞」등을 통하여 국한문체라는 새로운 문체를 등장시켰는데, 문체는 이 새로운 문체가 한문의 두가지 기능 가운데 실용문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예술문으로서의 기능을 대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한일합방 직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每日申報」는 말할 것도 없고, 1930년대에 간행된 「朝鮮日報」나 「東亞日報」까지도 내용의 대부분이 국한문체로 쓰여진 점으로 미루어 이 문체는 반세기 이상되는 세월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 문체의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註8에서 지적했듯이 본고에서 말하는 國漢文體란 漢主國從體를 가리킨다.)

그러나, 순전히 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문체는 한문의 문학적 기능(詞章)을 쇠퇴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을 뿐 스스로 문학적 문체로 탈바꿈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 국한문체가 언론매체를 주도한 1890년대 후반기부터 한국 한문학은 제1단계 쇠퇴인 文의 쇠퇴가 시작되고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뒤에는 제2단계의 쇠퇴인 詩의 쇠퇴가 뒤를 잇게 되는 것이다.

IV

개화기의 신문·잡지를 일별하여 보면 당시 중앙문단의 중심세력이었던 개화파 지식인들의 문자행위는 산문은 국한문체로 쓰지만, 詩는 여전히 漢詩를 짓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 이유는 文의 경우는 국한문체라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찾아냈지만 詩의 경우는 漢詩를 대체할 만한 국문시의 형태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漢文無用論을 앞장서서 부르짖은 申采浩·李沂같은 급진적 개화파들까지도 자신의 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漢詩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崇陽山人(장지연)과 謙谷(박은식)은 당시의 <사조란>에 상당히 빈도높게 등장하는 한시투고자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文과 더불어 詩도 결국은 국문으로 쓰여져야 하고 한시의 시대 역시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 이같은 의식의 결과는 새로운 국문시의 형태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쓰여진 국문시의 형태는 무척 다양한데 과거의 시조·가사와 함께 日本의 영향을 받은 창가·신체시 그리고, 이 시기에 와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본 개작민요, 국문 7자시(諺文諷月) 등이 있다.

개화기의 지식인들 가운데서 한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장 뚜렷이 보여준 인물로는 <天喜堂詩話>의 작자를 들 수 있다.¹⁰⁾ 이 詩話의 주장

10) <天喜堂詩話>는 「大韓每日申報」에 1909년 11월 9일~12월 4일 사이에 17회에 걸쳐서 연재된 총 19則의 비교적 단출한 詩話이다. 그 작자는 申采浩로 추정되어 그의 全集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그 작자를 찾아내는 일이 하나의 과제인데 「每日申報」 1911. 6. 15일 字 <詞藻欄>에는 <夏蝶>이라는 제목으로 天喜堂主人 尹商鉉의 七律이 수록되어 있다. 號를 玉汀이라고도 하는 尹商鉉은 <每日申報> 사조란의 단골기고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天喜堂이 그의 堂號임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그가 「大韓每日申報」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흔적을 찾지

을 요약하면 文弱한 詩대신에 強武한 詩로, 漢詩대신에 國詩로, 국민정신을 陶鑄하여 國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詩話에서 작자가 내세우는 國詩라는 것이 실상은 時調를 뜻하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작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愛國吟·丈夫吟·丹心歌(정몽주)와 李退溪·金裕器·尹善道 等の 시조를 인용하는 한편 퇴폐적인 민요의 개작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의 시조는 그 문학적 세련도에 있어서 전대의 시조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를 대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단구성(초·중장·종장)에 3장형식이라는 단조로운 형태로는 표현의 폭과 깊이에 있어 漢詩의 絶句에도 미치지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한시는 정제된 형식미를 갖춘 律詩를 중심으로 絶句·排律·古詩 등 다양한 형태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歌辭의 경우는 개화기에 앞서 論說化·칼럼화하기 때문에 詩에 포함시켜 이야기하기조차 힘든 형편이다. 改作民謠나 國文七字詩는 단순한 시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개화기에 이르러 새로 등장한 또 하나의 國文詩는 7·5조 唱歌나 新體詩가 있다. 창가라는 명칭 자체는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작되지만 이는 4·4조 연속체인 만큼 전대의 歌辭 형식과 별로 다른 점을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런데, 崔南善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7·5조 창가와 신체시는 각종 현대문학사의 첫장을 차지하면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 7·5조 창가나 신체시가 주로 발표된 《少年》《青春》의 두 잡지가 그 題名이 말해 주듯이 成人 대상의 잡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만큼, 그 발행부수나 배

못했고 文集이나 기타 저작물도 찾아내지 못했다. 단지 「每日申報」에 〈地方 儒生에게 警告書〉(1911. 7. 26字) 〈漢文學의 衰退〉(一, 二, 三回) (1911. 6. 12~14字) 等 두 편의 論說을 발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內容이 〈天喜堂詩話〉와 상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더러 있다.

포 범위가 극히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당대의 文壇을 주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내용이다.¹¹⁾ 당시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던 《大韓自強會月報》《大韓協會月報》《大東學會月報》나 지방 장학단체인 《西北學會月報》《畿湖興學會月報》《橋南學會月報》 등과, 심지어는 日本 유학생 잡지인 《大極學報》《大韓學會月報》《大韓興學報》에 이르기까지 成人 대상 잡지들은 《詞藻欄》을 거의 漢詩 중심으로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잡지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던 各新聞의 《詞藻欄》에서도 1920년 무렵까지 漢詩의 일방적 우위가 흔들린 적은 없었다. 「皇城新聞」의 《詞藻欄》에는 국문시라고는 실린 일이 없으며 「每日申報」의 경우에도 1925년경까지 거의 매일 漢詩를 수록하고 있다. 시조나 개작민요같은 국문시를 다수 게재하였던 「大韓每日申報」의 경우에도 질·량 모든 면에서 漢詩와 국문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무리일 정도이다. 따라서, 아직 청소년 티도 벗지 못한 六堂과 春園만을 文人으로 대접하여 二人文壇時代 云云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견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가나 신체시의 문학사적 의의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가나 신체시가 한시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든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漢詩는 「皇城新聞」(柳瑾 主宰) 「大國每日申報」(?) 「每日申報」(崔永年 主宰) 등 신문·잡지의 사조란을 중심으로 한 文壇과 함께, 「南山詩社」 「朝鮮文藝社」 「辛亥唸社」 「大東詩壇」과 같은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文學단체가 있었으며, 당시 조선 한문학계를 총망라한 듯한 「朝鮮文藝社」는 崔永年の 편집으로 문예 전문지인 《朝鮮文藝》를 2號까지 발간하기도 하였다.¹²⁾

11) 이 問題에 대해서는 金允植 <「少年」誌의 虛構性> 《近代韓國文學研究》(一志社, 1973), pp. 31~60 참조.

12) 《朝鮮文藝》는 1917년에 1號, 1918년에 2號를 발간하였으며 총 발행부수는 2,000부라고 편집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한문학계의 원로들을 망라하다 보니, 임원 조직이 상당히 복잡하며, 임원의 수도 말은데, 鄭萬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한시로부터 국문시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필연적인 방향이었고 창가나 신체시가 그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경우에 창가나 신체시의 선구적 의의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이들 국문시가 당대 문학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한시의 우세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은 창가나 신체시가 아니라 《泰西文藝新報》나 《懷惱의 舞蹈》를 통해 소개된 서구 자유시의 충격이었다. 文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兪吉濬·張志淵 等 개화파 문인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하여 한문과 국한문의 교체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詩의 경우에는 문단의 주류가 金億·朱耀翰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뒤에야 한시와 근대시의 주도적 위치가 뒤바뀔 수 있었다. 이렇듯, 文과 詩 사이에 30년 가까운 교체의 간격이 생긴 것은 결국 自生的 요인에 의한 교체와 외래적 요인에 의한 교체 사이에 介在되는 간격인 셈이다.

이 자유시의 등장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岸曙 金億이다. 김억의 《오뇌의 무도》가 당시 문학계에 끼친 영향과 파문에 대해서는 李光洙의 증언의 통하여 어느 정도 실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³⁾ 김억의 뒤를 이은 《創造》《廢墟》《白潮》동인들이 近代詩 형성에 끼친 공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再論을 略하기로 하겠다.

朝, 金允植, 呂圭亨, 尹喜求, 閔丙奭, 吳克善, 白潤洙, 徐相助, 鄭丙翰, 魚允迪, 宋榮大, 崔永年 등 임원의 면모를 보아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朝鮮文藝社」를 중심으로 한 개화기 시대의 詩社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稿를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3) “〈오뇌의 무도〉가 나온 뒤로 새로 나오는 청년의 시풍은 〈오뇌의 무도〉화하였다. 다만 표현법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상과 정신까지 놀랄만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집이 한번 남으로 그것에 자극이 되어 많은 시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니 岸曙의 근대시 건설에 대한 공적은 이 〈오뇌의 무도〉 1권으로 하여 마멸될 수 없을 것이다.” 《李光洙全集》 卷10 p. 45.

범박하게나마 한시와 근대시의 교체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자료로서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가장 광범한 독자층에 의해 읽혔던 「每日申報」 문예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每日申報」의 문예란에 金石松·盧子泳 등의 자유시가 등장하는 것은 1919년 무렵의 일이다. 매년 정초에 발표되는 新春文藝의 경우에도 1920년까지는 詩(漢詩)·詩調(時調)·언문풍월(國文七字詩)·신체시(7·5조 唱歌) 등을 주로 모집하였으나 1921년부터는 新詩가 등장하여 1922년 정초에는 4편의 당선작(一等, 〈새해의 祈願〉, 馬山河泰○)을 내고 있다. 한편 梅下山人 崔永年の 主宰아래 거의 매일 실리던 〈文苑欄〉(한때는 新詩·現代詩란 표제아래 漢詩를 실기도 했음)의 漢詩가 사라지는 것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25년 4월 17일자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日耀附錄〉란에 어찌다 한, 두편 실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니 15년 가까운 세월을 거의 매일 4, 5편의 한시가 실리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每日申報」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언론매체인 까닭에 이같은 현상은 독자층의 요구나 당시의 문학적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1920년대 전반기는 한학자와 유학생들 사이에 중앙문단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를 계기로 漢詩 역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漢文學의 쇠퇴는 漢文敎育의 쇠퇴와 병행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漢文學은 후계자 양성에 실패하고 결국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韓日合邦과 더불어 成均館이나 鄕校같은 漢文敎育 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西歐式 敎育機關인 公私立 學校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들 신식 교육기관에서의 漢文敎育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는 물론 漢文 敎育 자체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 漢文 敎育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書堂마저 신식敎育을 병행해 가르치는 改良書堂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這間的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日帝의 의도적인 書堂 탄압 조치가 가세하여 漢文 교육의 몰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다.¹⁴⁾ 日帝의 書堂 탄압은 忠良한 皇國臣民을 육성한다는 그들의 植民 教育政策에 따라 初等教育은 장려하고, 中等教育 이상은 親日派 자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여 植民地 下級官吏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民族教育 機關은 철저히 탄압하려는 일관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漢文學이나 漢文教育의 쇠퇴 자체는 역사의 필연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漢文學의 遺産을 계승하기 위한 整理作業이나 준비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西歐式文化나 新式教育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韓國文化 전반에 걸쳐서 文化的 斷層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오늘날 한국인들로 하여금 정신적 뿌리를 상실한채 外來文化의 洪水속에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앞 章에서 漢文學의 쇠퇴과정을 中央文壇에서 간행된 新聞·雜誌의 文藝欄을 중심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等 言論媒體가 國漢文으로 표기됨으로써 詞章이 文學적 기능을 상실하는 제 1 단계(1890년대 후반기)와 漢詩가 자유시에 밀려서 新聞·雜誌의 文藝欄에서 사라지는 제 2 단계(1920년대 전반기)로 나누어서 그 개략적인 현상을 고찰하여 보았다.

여기에 덧붙여서 地方文壇에서까지 漢文學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제 3 단계를 想定해 볼 수 있으나 (대체로 解放前後의 시기로 추정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資料의 수집 정리가 안된 상태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

14) 日帝治下의 書堂탄압과 漢文 교육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는 林桂順 <日帝強占下의 韓國書堂> 《韓國史論叢》 第一輯(성신여사대 국사 교육위원회, 1976), 참조

로 남겨둔다. 좀 더 엄격히 말한다면 漢文學은 현재 제 3 단계의 쇠퇴과정이 진행 중인 셈이고, 아직도 50대에서 70대에 걸친 韓國漢文學의 마지막 세대가 생존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이하에서는 漢詩나 漢文을 창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문 만큼 앞으로 약 20년 후인 21세기에는 韓國漢文學은 실제로 종료되는 날이 오리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漢文學의 시기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구체적 實例로서 國立圖書館에 납본된 漢文文集 가운데서 個人文集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文壇의 성격을 지닌 詩社·詩契集·唱酬集·壽筵集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1945 ~ 1950	1951 ~ 1955	1956 ~ 1960	1961 ~ 1965	1966 ~ 1970	1671 ~ 1975	1976 ~ 1980	1981 ~ 1984	계
권 수	2	7	8	15	18	35	25	14	124

위의 통계는 合同詩集이나 文集(文集은 극히 소수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숫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公式적으로 出版납본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 바 여기에서 빠진 文集도 상당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地理적으로도 嶺·湖南을 中心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상 漢文學의 종료를 선불리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¹⁵⁾ 더

15) 解放以後 漢文學의 현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特別市鍾路區雲泥洞九八番地(振替 서울二四番)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으로 漢詩를 모집 간행하였던 大東文友社의 활동상을 들 수 있다. 筆者가 가지고 있는 「第九回 漢詩 當選集」(三·一節 紀念, 1960年 3月 刊行)에는 모두 136명의 7言律詩(韻字一晴. 生. 聲. 明. 成)가 一等부터 佳作까지 六等級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卷頭に 수록되어 있는 〈第十回 募詩要領〉에는 〈春雨〉(押韻一天. 邊·炯·眠·連)라는 제목으로 1960년 5월 10일까지 마감하여 1960년 5월 20일 當選작을 발표한다고 公告된 것으로 미루어 2개월 간격으로 漢詩를 考選·發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考選委員—金凡父·吳養·洪贊裕)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卷末에 수록되어 있는 〈同

속 중요한 것은 최근에 他界하였거나 아직도 생존해 있는 老大家들 가운데는 韓國 漢文學史를 기술할때 빠뜨려서는 안될 重要작가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개화기 漢文學의 實相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資料의 정리가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開化期 이후의 重要작가 가운데는 文集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文集을 정리해 놓았어도 그 동안의 사회적 혼란과 무관심 속에 원고가 분실되었거나 未刊行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筆者의 조사에 의하면 「皇城新聞」詩壇을 主導했던 柳瑾, 「每日申報」詩壇을 主導했던 崔永年, 「辛亥噏社」의 中心人物인 安往居等 重要 작가들의 文集이 아직도 刊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本稿가 밝혀 보려고 한 漢文學의 下限線 劃定은 그것이 단순히 漢文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近來 學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近代文學의 起點에 관한 論議는 漢文學을 무시하거나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自生的 요인을 중시하여 英正時代로 소급하던지, 外來的 요인을 중시하여 開港期 이후로 내려잡든지 간에, 近代文學의 起點이란 前代의 文學인 中世文學과 近代文學이 교체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中世文學의 實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¹⁶⁾ 그런데 中世文學

人詩選原稿募集 延期公告)와 〈同人詩選 編輯要領〉인대 投稿는 一人 五首以內로 제한하면서 約一萬首의 漢詩를 4·6배판 上·下 二卷으로 간행할 계획을 公告하고 있는데, 이 公告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최소한 2천명 이상의 漢詩 創作人口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同人詩選」의 간행 여부는 필자의 게으름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16) 韓國 근대문학의 起點에 관한 재검토로는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民音社, 1973)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同書 pp. 8~22 참조). 이에 대한 反論이 金容稷교수에 의하여 제기되고, 《韓國現代詩研究》一志社, 1974, pp. 11~13 참조) 그간의 연구성과는 한국고전문학연구회編 《近代文學의 形成過程》(文學과 知性社, 1983)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先學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는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論文을 따로 써야할 만큼 방

은 漢文學과 國文學으로 二元化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漢文學의 비중이 훨씬 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만큼, 國文學中心의 單線的인 파악은 漢文學까지 포함하는 複線的인 관점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複線的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리해 본다면, 英正時代는 國文學의 上昇曲線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開港期는 漢文學의 급격한 下降曲線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漢文과 國文으로 二元化되어 있던 표현 매체가 國文 중심으로 一元化하고, 漢文學과 國文學의 위치가 역전되는 시기가 바로 近代文學의 起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시기가 어느 한 點으로 파악되어서는 곤란한 만큼 起點이라는 용어보다는 形成過程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近代文學의 형성과정이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는데, 英正時代를 그 제 1 단계로, 開港期를 제 2 단계로, 1920년대 전반기를 제 3 단계로 각각 比定해 보고자 한다.

제 1 단계는 다양한 社會, 經濟的인 변화와 함께 國文學의 폭발적인 증가로 특징지워진다. 한편, 漢文學의 경우는 中世文學의 특징인 擬古文과 教化論的 文學觀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漢文學도 새로운 생명력을 획득하여 朴趾源·申緯같은 巨峰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제 2 단계는 本稿에서 논의한 漢文學의 제 1 단계 쇠퇴와 겹치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특징은 漢文學에 대한 회의와 國文學에 대한 자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西歐의 충격에 의한 世界觀의 변화가 文學과 社會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갈등을 노출한 혼란기 내지는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 분량이 되겠기에 本稿에서는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밝히는 것으로 그치고 자세한 것은 後稿로 미루고자 한다.

제 3 단계는 漢文學의 제 2 단계 쇠퇴와 겹치는 시기인데 표현매체의 단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西歐의 충격을 흡수하여 한국 近代文學의 自立 기반이 형성된 시기로 파악된다.

위의 세 단계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세 단계를 종합적, 복선적으로 고찰하여야만 近代文學의 實狀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漢文學과 國文學을 분리하여 생각해 온 관계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노력의 낭비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의 논의는 종합적인 관점(특히 1920년대 이전의 文學의 경우)에서 한국문학을 파악하려는 입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資 料

- 金澤榮全集. 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8.
 大東學會月報. 3號~9號, 大東學會, 1908~1909.
 大韓每日申報. 影印本; 韓國新聞研究所, 1976~1977.
 每日新報. 影印本; 景仁文化社, 1984~1985.
 李光洙全集. 三中堂, 1962.
 朝鮮文藝. 1號~2號, 朝鮮文藝社, 1917~1918.
 韓國開化期學術誌. 全二十一卷, 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6~1978.
 漢詩當選集. 第九號, 大東文友社, 1960.
 皇城新聞. 影印本; 景仁文化社, 1972~1981.
 협성회회보. 影仁本; 韓國新聞研究所, 1977.

參 考 文 獻

- 金允植, 韓國文學史論考. 法文社, 1973.
 —, 韓國近代文學研究. 一志社, 1973.
 —, 韓國近代文學樣式論考. 亞細亞文化社, 1980.

-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 文璇奎, 漢文學史, 正音社, 1961.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1970.
- 이병근, “제몽주의 시대의 국어관”, 韓國學報. 12號, 一志社, 1978.
- 林桂順, “日帝强占下の 韓國書堂”, 韓國史論叢. 第一輯, 성신여사대 국어교육위원회, 1976.
- 林燦澤, “東國詩界革命과 그 意義”, 백영 정병옥선생 회갑기념논총. 新丘文化社, 1982.
-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8.
- 한국고전문학연구회編,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文學과 知性社, 1983.
- 拙稿, 開化期の 漢詩研究. 서울大 碩士論文, 1984.
- , “韓國 近代詩 형성의 장르론적 측면”, 現代詩. 제 2 집, 文學世界社, 1985.
- Escarpit Robert, 민희식·민병덕 譯, 文學社會學. 乙酉文化社, 1983.